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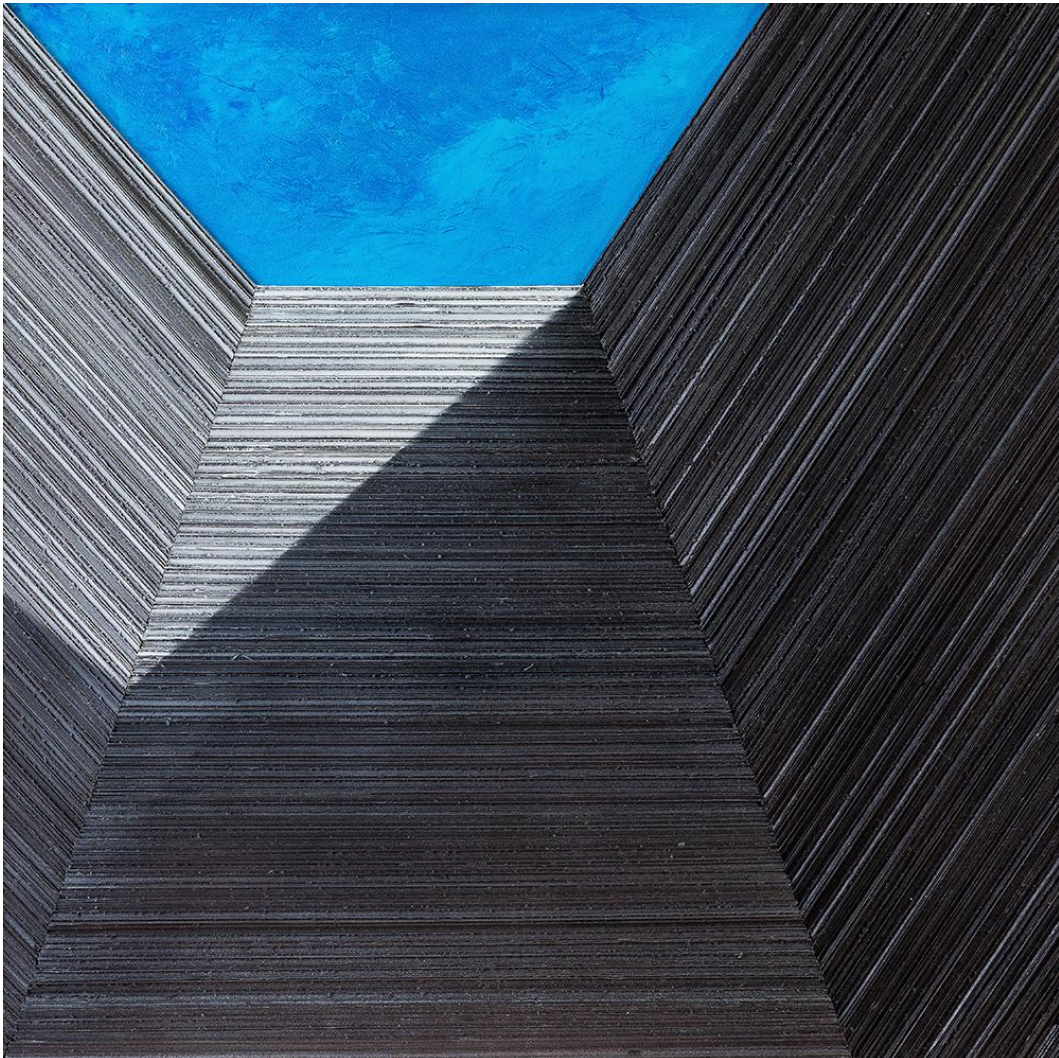
경북일보

HOME > 문화라이프 > 공연·전시

김완 초대전 '상처를 만지다'...내달 11일까지 청도 갤러리 팔조

☎ 남현정 기자 | Ⓞ 승인 2015.09.16 | 📄 15면

| 캔버스 속 하늘 보며 사색의 시간



▲ lightscape.

최근 몇 년간 뉴욕, 중국 등 국내·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빛을 그리는 작가, 빛을 재해석하는 작가로도 불리는 김완 초대전이 갤러리

팔조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이번 갤러리 팔조 김완 초대전에서는 '상처를 만지다' 라는 주제처럼 그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고,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김완은 10여 년에 걸쳐 지금과 같은 단색의 화면에 빛을 그려 넣은 작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의 변주를 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좀 더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이벤트와 함께 작품을 선보이려 한다.

김완의 작업은 현실에서는 보잘 것 없는 골판지를 예술 재료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 예술성을 불어넣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으로,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작품은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의 개인전에서 보듯이 예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어둠을 보여주는 그의 작업은 겉으로 그럴 뿐이지 사실 더 간절해진 작가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 더 깊어진 어둠은 빛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예술적 장치인 셈이다. 작가는 그렇게 색 대비를 극대화해 빛을 부르고, 하늘을 부르고, 바다를 부른다. 그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희망을, 그렇게 간절하게 호출하고 있는 것이다.

김 완 작가는 "내 작업의 출발은 칼질로 만든 종이들의 상처난 단면들로 시작된다. 상처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상처를 만지고 쓰다듬고 아름답게 혹은 깊이 있게 승화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상처로 만들어진 바탕 면은 이미 그 자체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미술적 언어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오픈 환영연회에서는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와 함께 Artist Talk Concert 형식으로 들을 수 있었다.

갤러리 팔조(청도군 이서면 팔조길 17-17 (양원리 16번지)) 9. 12 ~ 10. 11 / 오전11시~오후6시 / 목요일 휴관.054-373-6802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현정 기자

